

제 27 장 사도행전 Tape #8116

자, 성경책, 사도행전 27 장을 펴봅시다. 로마 법정의 접수회피를 인식한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을 실행해서, 카이사르에게 직접 이 사건을 청원했습니다.

1 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그것은 그가 카이사르의 개인적인 친위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카이사르 네로의 시대였는데, 그는 엘리트 중에 하나였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백부장이란 그가 일백 명 가량의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했고, 정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모두는 매우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구절에 있는 백부장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항상 매우 선하고, 긍정적으로 지도적 인물에 배역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억하겠지만(마 8:5-13),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며, 우리들의 회당을 지을 때도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갈 것이고, 그의 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동안, 다른 메시지가 왔는데, 주님께 아뢰기를, 당신이 이리로 오실 필요가 없다고 우리의 주인이 말했다고 했으니, 그가 권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도 권위 아래 있는 자이고, 그의 아래에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여! 당신께서 하실 일의 전부는 오직 말씀만 하시는 것이니,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낮겠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십자가 옆에 서있었는데, 말하기를, 진정으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져서, 이방 세계에서는 맨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카이사르의 개인적인 친위대의 한 사람으로, 의심할 것 없이 숙달되고, 용감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데 용감한 자이므로, 바울과 율리오 사이에 즉석의 묶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상호 존중을 하게 되어, 바울은 율리오를 존중하고, 역시 율리오는,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을 대단히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말입니다.

2 절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이라는 배에 타고 떠나니 데살로니가 출신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가 우리에게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는 바울의 여행 동반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을 기다리며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 장으로 돌아가 보면, 같은 장인들로부터 사람들을 함께 모았던 은장색 데메드리오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 소란함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아리스다고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우리의 장사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여신의 상징인 다이아나를 은으로 작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작은 은으로 만든 여신이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사가 기울어지고 있기에,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여행 동반자들인,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붙잡아 경기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가 아리스다고에 대한 소개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로마에까지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서신을 쓰면서, 그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다 아리스다고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아리스다고가 문안하노라! 등등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 그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남았습니다. 의심할 것이 없이, 그가 로마 거기서, 바울의 필요에 여전히 시중을 들고 있었으므로, 그가 바울의 동행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의 동반자인데, 그는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첫 번째 여행했을 때, 회심된,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일 것입니다.

3 절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으니,”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는 짧은 거리입니다. 실제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의 거리가 약 55k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돈에서 다음 날 만났습니다.) **“울리오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자유를 주어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라.”** 믿는 자의 모임이 시돈에 있습니다. 울리오가, 바울이 활기를 찾고 힘을 얻도록,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방문할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4 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이 불므로 키프러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지금 그들의 의도는 해안에 바짝 붙어 해안으로 따라 위로 항해하려는 것인데, 이는 활짝 열린 바다로 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물길이기 때문이죠. 원래 그들은 일종의 직선으로 가로질러 항해를 했던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들의 의도들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을 동쪽을 둘러 항해하기보다 오히려 키프러스의 남쪽 편에 두게 되었고, 다소 그들이 보호되는 섬의 북쪽 편에 놓이게 된 것인데, 아마도 그들이 약간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려했던 것을 바람이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미라로 가게 되었으므로, 키프러스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5 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지금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여행의 느슨함에 대한 우리의 상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이 이탈리아를 향해 떠난 시간부터, 이는 8 월경 이었는데, 3 월 초순까지 이탈리아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여행으로 걸린 기간은 약 6 개월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단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당신이 알겠지만, 우리가 현대의 증기를 이용한 배들, 또는 무엇을 타고라도, 18-20 노트로 여행을 한다고 볼 때, 음, 그들이 하루에 9 노트의 속도를 내면 행운이었을 것인데 바람이 반대로 불었기 때문에, 더 나쁜 결과가 났을 것입니다. 즉 그것이 천천히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더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 가이사라 지방을 떠나 미라까지 건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 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행해 중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일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에 태우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란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누가를 말합니다. 누가는 저자이기도 인데, 그가 역시, 바울과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 절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지금 당신은 크레테 섬의 동쪽 끝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미라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우 짧은 거리였는데도 말이죠. **8 절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니 거기는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것은 크레테 섬의 남쪽 편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그 섬을 따라 대략 중간쯤입니다.

9 절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의 때는 속죄의 날, 즉 음 키퍼[Yom Kippur]를 말합니다. 그 해의 특정한 때에, 그것은 10 월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11 월을 지났는데 항해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겨울에 지내기에 좋은 막사를 찾으려 했을 것이고, 겨울철

동안 항구에서 머물려고 했을 것입니다. 3 월의 하순까지는 그들이 지중해에서 모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으므로, 그것은 이미 10 월 중순을 지난 때였습니다. 항해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말이죠. 항구를 찾을 때라는 것이고, 단지 스스로 겨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즉 금식하는 때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기를, **10 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집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니,”** 지금 항해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내가 그것을 반대하여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리오의 결정 과정을 일으킬 만큼, 그가 그렇게 존중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1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 절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므로,” (겨울을 나기에 가장 이상적인 항구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특히 어떤 큰 도시와도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라세아였습니다. 이런 작은 도시에 머문다는 것이 선원들에게는 사실 그리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 베니게까지 가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니 베니게는,”** (거기서 그들이 겨울을 나기를 원했는데, 이는 크레테 섬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보다 좋고, 보호가 되는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북쪽과 남쪽으로부터 보호가 됐습니다. 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베니게까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레테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13 절 “남풍이 순하게 불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를 따라 바짝 불어 항해하였으나,” 베니게로 가기를 희망하여, 해안을 안고 갑니다. **14 절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 하는 폭풍이 일어 몰아치매,” 15 절 “배가 밀려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어 가는대로 두다가,”** 지금 그 당시의 배들은 길이가 약 42m 정도였습니다. 가로 들보가 약 11m 정도이고, 흘수가 약 10m 정도였습니다. 이 배는 특정하게 곡물을 나르는 화물선이었는데, 일종의 세계 곡물의 산지였던, 이집트에서 신고,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곡물의 화물인데 배 안에 276 명이 있을 만큼 적절한 크기의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단수의 돛과 돛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돛은 배의 중앙에 있었으며, 정방형이고, 보통은 가죽이나 아마포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대항하여 가기에는 사실 그리 큰 것은 아니었기에, 뒤에 아주 많은 바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들 배에 방향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고물의 양쪽 밖으로 노를 가지고 조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붙잡혀, 바람 속에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냥 끌려가도록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16 절 “글라우다라는 섬 아래로 밀려가,” (크레테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리 멀지 않습니다. 딱 작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으매,”** 그것들 뒤에 있는 작은 구멍정을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있을 때면, 그들은 배 안으로 그것을 끌어당기기를 원했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이는 폭풍우가 있는 거기에서 그 배에 대항하는 충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구멍정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배 위로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17 절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 (배를 단단히 줄라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밧줄을 취해, 배 밑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함께 배를 일종의 단지 묶으려는 듯 연장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조이는 것 등을 말합니다. 거친 바다의 파도

때문에 배들이 꼭 부서져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널빤지가 부서져 떨어질 것이기에, 그들은 이것들을 둘러 감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것을 밧줄들로 배를 졸라매는 것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 무서운 바다에서 그것이 부서져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배를 단지 묶는 것입니다.) **“유사에 빨려들까 염려하여 급히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니,”** 물론, 아프리카 해안에, 많은 배를 죽음으로 빠뜨린 모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래 기둥이 아프리카에서 실제적으로 붙어 닳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돛을 조절하여 내리려고 했고, 배가 가는 대로 놓아두도록 했습니다.

18 절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 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19 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의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20 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구원받으리라는 희망마저 다 사라졌더라.” 그들 모두가 결코 이것에서 벗어나 살 것 같지 않기에, 두려워하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끝장이다! 라는 일반적인 여론이 있었으니,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 살 것 같지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21 절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그것은 음식을 끓고 있는 것인데, 그런 폭풍우 속에서, 내가 믿기는, 여러분은 먹고 싶지 않죠. 당신이 너무 배 멀리를 해서, 음식이 분명 불쾌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토할 수 있는 만큼 토하고 다리 위에 올라와 있던 선원처럼,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아직도 선장이 올라오지 않았소? 라고 말했는데, 만약 내가 그를 곧게 들었다면, 그가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내 말은, 당신들이 진짜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한 가운데로 나가 서서 이르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22 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끔 끝장내려는 강한 충동이 있는데, 당신이 이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한 사내가 서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어야만 했소, 그러나 기운을 내시오. 예, 힘내요, 당신이 알죠.) **“이 배만 잃을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충고를 대항하여 아름다운 항구를 떠났으며, 지금 그들은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당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3 절 “이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24 절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하겠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음이니,” 25 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거기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격려했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의 사명을 확신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흥미로운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폭풍우에 많은 어려움이 거기 있었지만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는, 내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예루살렘에 갈 것이며, 절기를 위해 거기에 있기를 원하나,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나, 그는 그들에게 복음과 회심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났고,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감옥, 거기에 앉아 있을 동안, 한 밤중의 어둠의 시간에 풀이 죽었고, 실망했으며, 실패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 계시며, 기운을 내라, 바울아,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 하기 위하여 네가 태어났고, 그래서, 반드시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이라는 첫 번째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로마에서 나를 증거 할 것이라고 그를 확신시키셨습니다.

2년 뒤에, 바울은 베스도 앞에 서 있게 되었고, 그러나 그가 구태하게 접수 회피를 이용하고 있자, 그는,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한다고 말했던 것이고, 베스도는 대답하기를, 네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한다면, 너는 카이사르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시 살아날 모든 희망이 포기될 때, 주님께서 그를 확신시키셨는데, 네가 카이사르 앞에서 증거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가지게 된 것이고, 다음 장에서, 물론 그것이 성취되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나는 그것을 아무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만, 의심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나, 우리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주님에 대해, 우리 삶을 위한 목적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올 때면,

우리는 절망하기 쉬우나,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 하여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많은 공포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종종 대단히 필요합니다. 당신이 기억하지만(막 4:35-40),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 배의 뒤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닥쳐, 그들은 배 안의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들이 퍼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 배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그 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은 행하기에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는데, 그들이 생명에 대해 걱정을 하니, 두려울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음, 시작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넷사렛으로 건너가자! 그 분은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건너가자! 고 했으니, 만약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으면, 당신은 아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소명에 있어, 그 목적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어두운 밤에 당신을 복돋아 줄 수 있고, 가장 거친 폭풍우에서 당신을 복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은 바울에게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구스투스 앞에서 그의 변명을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것을, 그가 황제 앞에 서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카이사르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사람 모두를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아무튼 좋은 것입니다. 때때로 비행기에 오를 때면, 사람들이 와서, 아, 비행기에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내가 비행했던 적이 처음이어서, 나는 바보같이 딱 무서워하지만, 당신이 비행기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를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 다행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에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행운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말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이 나에게 말해진 대로 되리라고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지요! 내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보면, 베드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서있던 자가 말하기를, 사람들과 형제들이여,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성경구절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성경구절의 영감을 선언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성경구절의 무오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구절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있습니다. 오, 우리가 거기에 아무 방법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꼭 서있는 것을 배울 것이라는 말이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 말입니다. 강함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것들 위에 서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26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맡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 배가 그저 우연한 일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배가 특정한 섬으로, 특정한 종족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안내하고 계십니다. **27 절 “그러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자정쯤 되어 선원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하고,”** 그들은 아마도 해안에 부딪치는 파도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28 절 “물깊이를 재니 스무 길이고,” (약 36m 정도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더라.”** **29 절 “그 때에 우리가 암초에 걸릴까 염려하여 그들이 뱃고물에서 닻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 절 “선원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그것은 그들이 앞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다에 내려놓거늘,”** **31 절 “바울이 백부장파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32 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바울 안에서 그 확신이 점점 발전했습니다. 아마도 지중해를 여행하는 것만큼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보다 그가 더 많은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두 번씩이나 파선을 당했고, 실제로 한 주야를 물 속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내 말은, 이 사람이 그 지중해에서 그의 경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3 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들라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주려 지낸 지가 열나흘이니,” **34 절 “그러므로 청하건대 조금이라도 음식을 들라 이는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너희 가운데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도 매우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의해 인도되는 사람이지만, 또한 매우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 되기를 의도하고 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묘한 영적인 일종의 상태로 여기저기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에 실용적인 것들이 꼭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용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있는데, 그들은 먹은 것도 없이 14 일 동안 있었고, 곧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 중에 몇은 해안으로 수영해 가고 있고, 어떤 자들은 갑판을 움켜쥐고 있고, 등등, 즉 표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에너지를 취해야 하고, 무슨 힘을 취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해 있음을 알지요. 그래서 지금 먹어요, 이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가 먹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35 절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의 눈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바울은 점심식사 위에 기도하는 것에 공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중에 거기에 있을 때, 주님, 샌드위치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아무튼 말하겠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분께 진짜 감사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도록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그

들 모두 앞에서, 바울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누어 먹기를 시작하며,” 36 절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먹으니,”** 바울은

긍정적인 다소의 영향이 있었고, 그들에게 기운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했으며. 그가 그들에게, 머리의 머

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해안으로 모두 갈 것이었습니다.

37 절 “배에 있는 우리는 전부 이백칠십육 혼이더라.” 38 절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니라.”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쪽 가지고 왔던 화물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얇은 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배를 훨씬 더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능한 한 해안에 가장 가깝게 닿도록 얇은 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높게 타고 가기를 원했기에, 물에서 높게 타고 갈 수 있도록 배를 가볍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곡물을 바다 속에 다 던져 버렸습니다.

내가 해보기를 좋아하는 모험 중에 하나를 케이[Kay]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타 섬에 가서 꼼꼼히 조사하고 싶고, 그 바다 속에서 계곡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꼭 조사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 배가 파선된 장소를 꼭 찾아보고 싶고, 그들이 밖으로 놓아버린 4 개의 닻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보고 싶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산뜻한 발견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알지만, 단지 잠수복과 등등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5 길이니, 그리 깊지도 않습니다. 이것과 등등을 발견하려고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분명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같은 모든 것과 이 일들을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하고픈 일에 대해, 나는 일종의 산뜻한 일이라고 그저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재미있을 것입니다. 내가 황금빛 탐험 여행을 가졌지만, 결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미있었습니다.

39 절 “날이 새매 그들이 어떤 땅인지는 알지 못하나,” (이상했습니다.) **“해변이 있는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는 대로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마음먹고,”**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는 이 작은 계곡을 보고, 그들은 그 안으로 그것을 대려고 생각했습니다.

40 절 “닻을 끌어올려 자기들을 바다에 내맡긴 채 키를 묶은 줄을 늦추고 큰 돛대의 돛을 바람에 맞추어 달아 올리고 해변을 향해 나아가다가,” 41 절 “두 물살이 합치는 곳으로 들어가 배가 암초에 얽히매

앞부분은 단단히 부딪쳐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여전히 사나운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42 절 “이에 군사들은 죄수들 중의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고자 권고하였으나,” 지금 만약 군사가 그에게 맡겨진 죄수를 가졌다면, 그 죄수가 분명 도망하려고 할 때, 군사가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생명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취해 쓰기 전에, 차라리 죄수들을 죽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3 절 “백부장이,” (율리오를 말합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라 하고,” 44 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언급했지만, 이것은 파도 보드와 파도타기에 대한 첫 번째의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부서진 배의 파편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자, 이것이 이 장의 끝입니다. 이 장은 매우 어두운 장인데, 어려움으로 꼭 차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향하여 처음 떠난 이래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은 이 심술궂은 폭풍우를 당했고, 14 일 동안 그들은 해와 달을 보지 못했으며, 배를 때리는 엄청난 파도와 함께 바람이 울부짖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해 절망했고,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바람과 매서운 바다의

자비에 자신들을 아무튼 맡겨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생소한 섬에 왔습니다. 그 배, 꿈쩍하지 못하는 그 배는 파도의 사나움에 의해 깨져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해안에 안전하게 닿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추위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말타 섬에 침착하게 데려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여기서 성취할 일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으로 가는데, 갑자기 우리가 전체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체 이야기를 볼 때, 이 시련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는지! 를 또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전에 발산했던 모든 것 안에 성취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을 지금 보기 때문에 이 환경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으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어려운 경험들의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이해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려운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이 대변동이 되는 것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움 같이 보일 때, 그것을 물리치는데 있어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일하는 중입니다.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므로, 당신은 뒤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어려운 환경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했던 곳은, 하나님에 의해 버려졌다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는 것이거나, 하나님께서 아마도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의 경험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리지 않으셨지만, 모든 시간에 당신을 어떻게 안내하시고 준비하시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뒤돌아 볼 수 있는 곳의 삶의 무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 이 조망으로부터 삶을 이해하는 것보다 얼마나 다 좋게 되었는지요! 사역의 초기 수년간에는, 많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장래에 대해 불확실하니, 왜 여러분이 수많은 시련,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지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고, 이들의 경험 모두가 필요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그 곳에 여러분을 데려갈 그분의 준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분이 초기에 의도하셨고, 그 어려움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 바람에 의해 몰려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그러나, 갑자기 여러분은 새로운 빛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진지함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나를 모든 길로 인도하시네, 그 외에 내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그분의 공훈을 의심하는가? 삶을 통해 나를 안내하는 자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흥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은 젊는데, 폭풍우가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매서운 바다, 여러분 중에 누구는 바로 지금 그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두운 밤에, 폭풍우의 바다에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어두운 밤에, 폭풍우의 밤에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 나를 증거 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카이사르 앞에 내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리라. 바울아, 내가 네게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가졌던 그 흥미로운 사역에 들어감으로서, 하나님께서 밀레투스 섬에서조차 그들이 있을 것에 대한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을 위한 강력한 역사를 세우면서, 3개월 동안 그는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양보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납될 때 흥분됩니다. 의로운 사람의 단계들은 주님께 의해 주문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방법,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그분을 꼭 인식할 것이고, 그분은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통과하도록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로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즐거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니 말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연하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이 통제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모든 것이 함께 일하십니다. 이 일들의 모든 것에 형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은 혼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지 않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방법들을 당신께 단지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